

# 종교개혁 정신과 가정의 신앙교육



### 종교개혁의 우산 아래로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다. 매년 10월이면 교회에서 종교개혁 기념 주일을 지켜 왔지만, 그래도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들쭉거리는 것이 사실이다.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한 행사를 하고 있다. 개혁가들이 예배의 찬송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져왔지만 한국교회가 있고 있었던 시편 찬송가. 단조롭고 지겨운(?) 그 찬송가를 매주 배워 부르고 있으며, 그 의미를 자세히 알기 위해 시편 설교와 시편 강의로 열리고 있다. 교회에서 종교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그동안 무심히 배워왔던 교리문답서들이 새롭게 다가온다. 교리 문답서들을 종교개혁 기념일과 연결시켜 다시 보면 신앙의 선조들이 물려준 이 거대한 유산이 예상외로 깊게 다가온다. 심지어 루터의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부를 때면, 그의 두려움과 떨림이 5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강한 울림으로 느껴진다. 그가 어떤 믿음으로 이 찬송을 지었는지, 성령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용기를 주셨는지, 그의 신앙고백이 어떠한지 공감되면서 감동의 눈물이 나오기도 한다. 중세의 교회사와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사를 다시 공부하고 곱씹으면서 새로운 통찰과 도전을 받기도 한다. 그렇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은 하나님이 성도를 가르치시는 시간이다. 종교개혁이라는 커다란 우산 속에서 2016년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 역사를 배우다는 것은

교회에서 교회사를 계속 배우고 있다.<sup>1)</sup>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사를 배우면서 들은 많은 이름이 있다. 루터, 멜란히톤, 츠빙글리, 존 낙스, 칼뱅, 부셔, 파렐

등은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인간적으로 위대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이 아님을 확신하게 된다. 일례로 루터는 만성절에 교회 정문에 반박문 97개 조항을 붙이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교회사의 큰 획을 긋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단순히 로마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하여 다른 사제들과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싶었던 마음에 대자보를 붙인 것이다. 작은 행동이 또 다른 행동을 낳게 되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한 걸음씩 또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종교개혁을 진행해 가셨다. 사람들의 철저한 계획과 조직적인 구성, 행정력으로 종교개혁이 단행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위한 성도들의 작은 용기와 행동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해 주신 것이다. 결국 앞에서 언급한 신앙의 선조들은 시대적 상황, 하나님의 부르심, 말씀 앞에서의 간절함과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믿음의 거인 같은 존재들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감히 해 본다.

종교개혁 500년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이며 작은 발걸음을 어떻게 딛고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특별히 부모라는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 역할에 반응하고자 하는데, 우선 개혁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로마 교회의 전통으로부터 부모됨의 역할을 개혁하였는지 배우고자 한다.

1 다니는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학교 시간에 자녀들과 함께 부모들이 교회사 공부를 한다.



한신영 (前) 샘물초등학교 교장이자 현재 이화여대 초등교육학과 박사과정에 있다.

### 종교개혁, 결혼의 재발견과 가정의 개혁

많은 종교 개혁자들은 그 시대를 뛰어넘는 삶을 살았다. 진리가 아닌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을 때,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을 외치며 성경이 제시하는 진리를 붙들었다. 교황의 절대 권력 아래 로마 교회가 성경과는 다른 구원의 조건들을 이야기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sola Christus)가 구원자임을 선포했다. 구원을 위한 자신들의 공로와 인간적 행위를 강조할 때, 오직 믿음(sola fide)과 오직 은혜(sola gratia)를 외쳤으며,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soli Deo gloria)을 외치며 그 시대와는 다른 소리를 내었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다. 칼뱅이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장례를 검소하게 치렀고, 그래서 지금도 그의 묘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적인 정신과 삶을 생각하면서 부모에게 주는 도전을 새롭게 배우고자 한다. 개혁자들은 대부분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렸다. 2016년의 관점이 아니라 16세기 당시의 기준으로 이들의 결혼생활을 바라보면, 그들의 행보는 파격적이다. 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제였다. 로마 교회와 교황청은 사제들의 독신주의를 교회법으로 제정하였다. 아무도 로마 교황청의 법에 반박할 수 없던 시대였다. 사제가 갑자기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겠다고 선언하더니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주위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수많은 의심과 질타와 비난과 정죄의 소리가 들려왔을 것이다. 실제로 루터가 수도원에서 도망쳐 나온 수녀와 결혼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비판하며 등을 돌렸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사람의 판단과 시선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로마 교회에 빼앗겼던 아버지의 역할을 실제로 다시 찾아왔다.

루터 자신이 결혼하여 12명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가정을 회복해야 할지 누구보다 고민했을 것이

다. 그는 어린이용 대소요리문답을 저술하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십계명, 주기도문과 함께 가르치도록 하였다. 또한 신앙교육의 연장선에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당시 유럽은 새로운 식민지와의 교역으로 물질주의가 그들의 사고에 영향을 주고 있었고, 일반 대중들은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부보다는 실제적인 경제 활동에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며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었다. 루터는 이러한 부모들의 태도를 육신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의원들에게 기독교 학교의 건립과 운영을 호소하는 논문을 쓰기도 하였다. 루터뿐 아니라 많은 개혁자들이 가정의 중요성, 특히 부모의 신앙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교회 성도들에게 가정 경건회를 통해 매일 성경을 읽고 성구를 암송하며, 교리문답을 가르쳐 신앙교육을 하도록 이끌었다. 결론적으로 개혁자들은 이전까지 로마 교회와 사제들에게 빼앗겼던 자녀의 신앙교육을 다시금 가정에게로, 부모에게로 돌려보내는 개혁을 계속적으로 해 나간 것이다. 이러한 개혁이 힘이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이 실제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며 그 역할들을 고민하였기 때문이다.

### 개혁가들의 정신을 잇는 부모로 산다는 것은

개혁자들의 삶을 움직인 힘과 기준은 말씀이었다. 많은 사제들과 백성들이 전통과 규율에 매여 진리에서 벗어나 거짓을 붙들고 있을 때,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를 외치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진리의 기준을 붙들고 교회와 그들의 삶을 개혁해 갔다. 우리 시대의 부모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이와 동일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의 기준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에 말씀을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책임감을 갖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언약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일을 교회나 다른 곳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자.

부모가 담당하자. 교회에서는 부모가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교회에서 바른 설교가 선포되어야 한다.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교회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부모는 교회의 도움을 기초로 언약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특별히 개혁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가정 경건회를 회복하여 말씀을 읽고 가르치며 자녀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일을 삶에서 실천하면 좋겠다. 부모는 주께 은혜를 구하며 가정 경건회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시작은 쉽지 않을 것이다. 현대인의 삶은 바쁘고 분주하다. 가족이 함께 하루 15~30분 정도의 시간을 갖는 것도 어려운 것이 우리의 실상이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각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희생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을 따로 결단하여 시작한다고 하지만, 자녀들의 반응이 혼쾌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여 시간과 공간과 자녀의 마음이 모아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가정 경건회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다. ‘어떻게’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주께 지혜를 구하고 각자의 가정 상황에 맞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주 단순하게 시작하자면 개혁자들이 그들의 자녀들과 신자들에게 가르쳤던 예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 드러지는 가정 경건회는 공적 예배가 아니다. 예배의 형식과 같은 예전에 매일 필요가 없다. 신앙 고백문과 답을 함께 읽기만 하여도,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기만 하여도, 주일에 선포되었던 설교 말씀을 다시 요약하여 듣고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만 하여도, 성경 말씀을 함께 암송만 하여도, 그리고 이러한 말씀과 함께 간단한 찬양과 기도로 마무리하기만 하여도 충분히 가정 경건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가정 경건회의 모습이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지나치게 형식적일 수도, 덜 경건한 모양일 수도 있다. 또 무엇인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회의가 몰려올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각자의 가

정 상황에 맞게 자리 잡게 되면, 가정 경건회는 부모와 자녀의 신앙 고민을 나누고 주께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영적 교제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인 가정 경건회를 위해 부모의 결단이 요구된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가정 경건회를 유지시키는 힘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이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순종해 보는 것이다.

#### 다시, “sola”를 외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교회의 가르침을 비판하면서 “sola”를 강조하였다면, 역으로 그 시대는 진리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로 그 자리가 채워지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돌아보면 진리의 자리를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는 심성은 시대가 바뀌어도 동일한 것 같다. 부모인 나의 삶에서도 진리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로 채우려는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다. “오직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아이들의 삶을 채우고 싶은 유혹, “오직 은혜”가 아닌 부모의 노력과 의를 강조하며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라는 드라마 대사를 던지고 싶은 유혹,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키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내가 높아지고 싶고 칭찬과 영광을 받고 싶은 유혹 앞에 서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혁자들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sola”의 외침에 반응해야겠다. 잘못 가고 있었다면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와야겠다. 작은 일상에서의 이러한 영적 투쟁과 결단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잇는 부모의 자세일 것이다. 